【대만, 2013년, 9월】【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

1. 관할 지역, 현장 이슈

▶ 금년 꽁치 생산량 일본제치고 세계 1위

❍ 대만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금년 대만 꽁치 어획량이 18만톤을 돌파하여 대만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 1위 생산국인 일본을 능가하였다고 함

❍ 대만 꽁치 어선은 주로 80~90여척으로 주로 매년 6월에서 11월까지 일본 북해도 동부 쪽,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이남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 꽁치 조업을 하는데, 지난 3년간 꽁치 평균 어획량이 약 16만톤 정도였으나 금년에는 12월 상순까지 조업하여 18만 2천 톤까지 생산하였고, 꽁치 세계 1위 생산국인 일본을 능가하였음

❍ 어업서는 꽁치 조업 관할 해역 자원보호에 대한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가 2014년 설립됨에 따라 대만은 NPFC 회원국의 일원으로써 본 해역에서 조업 활동에 대한 권리 유지와 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참가할 예정임【출처 : 2013.12.20. 農業委員會 漁業署 신문】

▶ 중국 하문시 대만산 수산물 특혜 조치로 수입량 매년 증가

❍ 중국 하문시 동도(東渡)항은 대만산 수산물 최대 수입항구로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대만 수산물 수입횟수가 331차례, 수입량이 2.04만톤, 수입액은 US$1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2%, 3.61%, 30.77%이 증가됨. 하문 동도항은 중국 복건성 수산물 수입량의 50%를 차지하며 주로 꽁치, 신선 멸치 등을 수입하고 있음

❍ 2011년부터 하문시는 대만 수산품에 대해 수입 무관세를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 대만산 수입 장려정책 및 대만산 통관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문시 대만 수산물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하문시 수입 검역국도 대만 수산물의 신선도 등 품질을 고려하여 빠른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출처 : 2013.12.06 魷魚漁業資訊 第487期】

▶ 금년 8월까지 중국 복건성 對대만 수산물 수출입 물량 7만톤 넘어

❍ 금년 1월에서 8월까지 중국 복건성 수산물 수출입 무역 총량은 72만 6천 800톤, 무역 총액은 US$3,883 백만불로 전년 대비 20.11% 증가되었고 제3분기까지 수산품 수출 무역 실적은 중국 내 최고를 기록하였음

❍ 복건성의 주요 수출국은 동남아시아, 대만, 홍콩, 미국 등이고, 주요 수출품은 문어, 오징어, 게, 뱀장어, 새우 등의 수산물 위주이며 단일 품종 수출액이 미화 1억 달러를 모두 초과하였는데, 그 중 對 대만 수산품 수출입 무역 총량이 7.17만톤, 무역총액은 66백만 불로 전년 대비 38.04%가 증가되었으며 전체 수출입 물량의 10%를 차지함

❍ 중국 천주(泉州), 영덕(寧德) , 장주 (漳州) 지역도 수산품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35%, 58.13%, 30.63%로 증가되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수산품의 고급 가공처리 이후 홍콩, 대만 시장 등 고가 시장으로 수출함으로써 증가율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함
【출처 : 2013.11.18. 魷魚漁業資訊 第486期】

▶ 추석 맞아 굴, 새우, 조개 등 해산물 가격 폭등

❍ 대만은 추석기간 각종 고기류 및 해산물을 숯불구이하여 지인들과 함께 나눠 먹는 풍습이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구이 주요 해산물인 새우, 굴, 조개 등이 태풍 등으로 인해 어획량 감소 및 추석맞이 수요 증량에 따른 가격이 폭등됨

❍ 굴의 경우는 지아이(嘉義), 윈린(雲林) 지역의 생산량이 천적인 고동(나사조개)피해로 인해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이 감소되었고, 가격은 20% 상승되었음

❍ 껍질동반 굴은 600g당 NT$50달러, 껍질제거 굴은 600g당 NT$150달러까지 상승되었고, 추석연휴에는 더 상승될 것으로 예측

❍ 새우는 작년 600g당 50마리 급의 새우 산지가는 NT$80~90달러(한화 약 3천~3천4백원)였으나 금년에는 NT$120달러(한화 약 4천5백원)로 약 25%상승되었고, 600당 30마리 급의 산지 가격은 NT$150달러(한화 약 5천7백원) 이상 상승하였고 소매가격은 NT$200달러(한화 약 7천6백원)에 달함

❍ 금년 가격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조개류도 최근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수질이 변질되어 윈린 연안 조개 폐사율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600g당 40개 급의 도매가가 NT$30(한화 약 1천 1백원)에서 NT$40(한화 약 1천 5백원)까지 상승되었음. 향후 지속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신선 또는 냉장 해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냉동 해산물 구입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 냉동 새우, 꽁치, 고등어 등도 가격상승 추세
【출처 : 중광신문(中廣新聞) 2013.9.15.】

▶ 일본 방사능 유출, 주부연맹 정부의 소홀한 대처 지적 및 “꽁치” 수입 강화검사 촉구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건으로 인해 주부연맹은 금일(9/6) 최근 “꽁치 어획기”를 맞아 꽁치에 대한 수입발췌검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 대만 예년 꽁치 어획량이 16만톤에 달하나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금년 6kg 꽁치에 해당하는 수량만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함

❍ 이에 수입검사 발췌율을 높이고 검사 데일리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며 수입식품의 방사능을 포함한 검사결과 및 상품 정보 공개 요구

❍ 일본 후쿠시마 핵전력공사는 금년 8월 2차례에 걸쳐 방사능 유출사건이 있었음을 공개하였고, 도쿄 전력공사에서 적어도 300톤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물이 유출되었음을 증명하여 최근 환경 및 해양생태 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대만 주부연맹은 금일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이후 홍콩은 수입식품의 방사능 물질 함유여부 검사 건이 15만 건을 실시한 반면 대만은 4만 건에 그쳐 상대적으로 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함. 마침 6~12월 꽁치 조업기를 맞아 연간 어획량이 16만 톤에 이르나, 정부는 금년 7~8월의 6kg 발췌검사를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소홀한 대처를 지적함
【출처 : RTI(中央廣播電台) 2013.9.6.】

▶ "꽁치" 방사능 등 검사강화 촉구, 어업서 지속적으로 엄격 관리 중

❍ 대만 주부연맹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위생검사 강화 촉구에 대해서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2011년 3월 24일 이후부터 대만 원양어업 꽁치에 대한 지속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발표함

❍ 수산품의 안전 및 검사 강화 촉구에 대해 어업서는 샘플 발췌율을 높이고 검측결과 보고를 즉시 실시하여 국민건강 안전에 힘쓸 것을 표명함

❍ 농업위원회 어업서에 따르면 대만 꽁치 원양어업은 일본 200해리 경제해역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 후쿠시마와는 약 720km이상 거리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2011년 일본 대 쓰나미 이후 지속적인 방사능 샘플링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힘

❍ 금년 7-8월간 총 6척에 대해 (1척당 1kg 발췌)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9/5일 3척을 추가로 발췌하여 검사 실시 중에 있음

▶ 중크롬산칼륨 오염된 양식 석반어 5년간 섭취

❍ 공업용 화학약품을 동물성약품으로 둔갑시켜 대만 중남부 석반어 양식장으로 판매하여 불법 고영리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 이슈가 되고 있음. 중크롬산칼슘 오염 석반어가 5년간이나 시판되었고 중크롬산캄슘이 독성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음

❍ 이 사건에 연류된 장모씨는 무허가 건물에서 공업용 중크롬산칼슘, 메틸렌 블루, 엘리트로마이신, 아모시실린 등의 화학약품을 혼용 30여종의 상품을 제작하여 "석반어 피부병치료 및 체력강화" 등의 내용으로 양식장 업주위주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현장에서 약 1,251kg이 적발됨 【출처: 中國時報 2013.8.10.】

▶ 장어 치어 조업 제한 규정으로 장어 자원 보호 실시

❍ 대만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2008~2012년까지 어획량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요 조업 시기는 매년 10월부터 익년 4월말까지(5~9월까지는 비수기)이므로 지난 9월 9일 「장어 치어 조업기 제한 규정」을 발표하여 매년 3/1~10/31까지 화련현 및 타이동현 이외 기타 지역에서의 3해리 내 간조지역 및 강 하구 해역에서의 장어 치어 조업 금지령을 내림

❍ 조업 초기 및 말미인 3,4,10월의 평균 3개월간 어획량은 약 10만 마리 정도 되며 3개월간의 장어 치어 조업을 금지한다면 그 이상의 자원보호가 예상됨

❍ 또한 조업 성수기의 장어 치어의 밀반출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밀수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農委會 漁業署 2013.09.18.】

▶ 수입 전면 개방된 중국산 따쟈세(대갑게) 물결 속에서 대만산 경쟁력 있어...

❍ 가을에는 게가 제철을 맞는데, 그 중 대갑게는 명품 게로 취급되며 9월말부터 시판 됨. 대만산 대갑게는 최근 양식 기술력이 대폭 상승되었고, 대만 위생 검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대만산이 중국 수입산보다 고가 판매 중임

❍ 대만 미아오리현은 지난 2년간 중국에서 대갑게 묘를 수입하고, 중국산 대갑게 전문가를 장기 초빙한 결과 대만 대갑게 양식 성공률을 15%에서 40%로 향상시킴.

❍ 미아오리 대갑게양식협회에 따르면 작년 대갑게 수확을 성공리에 마쳤고, 금년에는 대갑게 양식 면적을 40여ha로 증가시키고 참여가구 수도 총 103가구로 증가하는 등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대갑게 마리당 중량도 38g 이상 증가되었고, 266g 이상인 대갑게도 약 10%을 차지함

❍ 대만산 대갑게 금년 첫 출하품이 이미 위생검사를 거쳐 시판이 되었고, TV 홈쇼핑 등으로도 판매시도 중임

❍ 중국산 대갑게의 경쟁에 대해 대만산 미아오리현 대갑게는 중국산보다 엄격한 검사 조건으로 통과되었으며, 자국산을 우선하는 일부 소비자층으로 인해 크게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만산 게는 평균 마리 당 170g 이상으로 중국산보다 NT$50달러 정도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출처 : 中廣新聞網 2013.09.20.】

2. 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전망

□ 수입 동향

❍ ‘12년 수산물 총 수입실적은 281,101톤, US$769,211천불로 전년대비 수입량이 8.4%, 수입액이 4.9%로 증가

❍ ‘13년 1~8월까지의 총 수입실적은 156,096톤, US$458,632천불로 전년 실적의 55.5%, 59.6%를 각각 달성하였고, 9~12월까지 4개월간 수입실적이 연간 평균 약 40~50%인 것으로 감안하여 볼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연간 전체 수입실적 중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수산물이 85~90%를 차지하고 가공식품이 15~10%를 차지함

❍ ‘13년 1~8월 기준 수산물 전체 수입국 중 중국이 1위로 수입액이 15.3%, 베트남이 2위 15.3%, 인도네시아가 12.9%로 그 다음을 차지함. 중국산 주요 수입품은 신선 냉장 냉동의 연체류와 냉동, 냉장, 신선 어류, 갑각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베트남산은 냉동어류, 신선 및 냉장 어류의 절편, 갑각류, 해산물 소스류 및 조제품 수입이 주로 됨. 인도네시아도 신선 및 냉장, 냉동 어류와 연체동물이 주류를 이룸

❍ ‘13년 1~8월 한국산의 수입실적은 974톤, US$4,219천불이고 주요 품목은 냉동어류, 연체동물이 주류를 이룸

<수산물 연간 수입량>

(단위: 톤, 천U$,%)

구 분	2010		2011		2012		2013(1-8)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신선,냉장 냉동,건조	229,097	581,663	233,534	650,465	254,936	678,363	141,082	400,934
가공식품	26,019	88,049	24,629	82,844	24,153	90,848	15,014	57,698
합 계	257,126	669,712	260,174	733,309	281,101	769,211	156,096	458,632
전년 대비 증감율(%)	-	-	△ 11.8	△ 9.5	△ 8.4	△ 4.9	-	-

자료원) 대만 재정부 관무서 http://web.customs.gov.tw/mp.asp?mp=1

□ 품목별 수입동향 및 전망

<주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입물량 통계>

(단위: 톤, 천U$, %)

품목	2012 1~8월	2013 1~8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한국
	물량	물량		국가	물량	국가	물량	국가	물량	물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참치	1,362.8	1,845.2	35.4	태국	949	베트남	531	인도네시아	75	0.7
	4,528	6,190	36.7		4,270		1,047		28	2
바다가재	1,042.3	821.6	▼21.2	미국	216.6	인도네시아	151	캐나다	145.1	-
	17,666	13,954	▼21		3,279		3,066		2,153	-
오징어	11,525.5	10,175.5	▼11.7	인도네시아	2,834.9	중국	1,967	칠레	1,980	78.2
	15,627	14,670	▼6.1		4,426		2,554		2,285	785
굴	667	621.5	▼6.8	한국	175.5	프랑스	31.5	미국	257.5	175.5
	2,191	2,079	▼5.1		656		512		426	656
김	1,515.9	1,442.8	▼4.8	중국	931.6	한국	275.2	태국	714.7	275.2
	18,671	21,677	16.9		12,007		4,875		3,017	4,875
넙치	4,126	4,026.9	▼2.4	그린란드	1,736.5	아이슬랜드	645.5	중국	714.7	-
	23,964	21,084	12		9,896		3,669		3,017	-
고등어	3,862.8	3,252.1	▼15.8	노르웨이	2,202	아이슬랜드	677.5	영국	252.4	12.5
	4,004	3,739	▼6.6		2,547		782		266	10
대구	1,294.3	1,585.1	22.5	미국	1,163.5	말레시아	277.9	중국	22.2	-
	5,281	4,947	▼6.3		3,125		1,471		99	-
전복	1,433	1,501.1	4.8	중국	1,476.8	호주	45.9	남아프리카	77	-
	23,039	23,024	▼0.1		18,363		2,474		1,832	-
해삼	962.6	815.6	▼15.3	온도라스	371.1	파라과이	69.1	터키	168	-
	11,856	8,652	▼27		3,411		1,351		1,037	-
연어	262.8	401.9	52.9	캐나다	62.2	중국	197.7	베트남	50	-
	4,218	4,313	2.3		1,214		1,208		643	

* 자료원) 대만 재정부 관무서 http://web.customs.gov.tw/mp.asp?mp=1
* 순위는 수입금액 기준임

❍ 대만 주요 수입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넙치가 비교적 큰 비중으로 수입되고 있고, 그 외 참치, 바다 가재, 굴, 대구, 전복, 연어 등도 수입 주요 품목으로 들 수 있음

❍ 참치는 ‘13년 8월말 기준 1,845.2톤(US$6,190천불)이 수입되었고 주요 수입국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 등임. 일본산은 신선、냉장상태로 주로 수입이 되나 태국산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통조림 및 염장절편 등 가공형태로 수입됨. 통조림 등 가공형태로 90% 수입됨

❍ 바다가재는 ‘12년 8월말기준 1,042.3톤(US$17,666천불)이나 ’13년 동기간 기준 821톤(US$13,954천불)으로 전년대비 약 -21% 감소되었음. 상반기 쿠바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되었으나 8월 기준 미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쿠바 등 수입 우선순위를 나타냄. 활어형태로 60~70%, 냉동형태로 30~40%가 수입됨. 조제형태로는 극히 적음

❍ 넙치는 ‘12년 연간 총 수입량이 7,210톤 수입액이 40,759천불로 캐나다 2,182톤(U$12,947천불)、아이슬랜드 934톤(U$4,883천불), 스페인 591톤(U$2,485천불), 중국 373톤(U$1,809천불)순위로 수입됨.’13년 8월말 기준으로 볼 때 중국산이 1위이나 매년 총 수입실적 기준으로는 캐나다산이 가장 많이 수입됨

□ 타국산(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 김

- 2013년 1-8월 기준 김 및 홍조류는 총 수입량은 1,442.8톤(U$21,671천불)이고, 그 중 중국산이 931.6톤(US$12,007), 한국산이 275.2톤(U$9,875) 태국산이 714톤(U$3,071)이 수입되었음. 중국산은 전량이 신선·냉장 형태 및 건조형태로 수입되어지며, 한국산은 수입량 기준 신선·냉장이 30%, 건조형태 45%、조미형태 33%를 차지하고, 수입액 기준으로 볼 때 신선·냉장이 22%, 건조형태 33%、조미형태 44%를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수입량은 4.8% 감소되었으나, 수입액은 20.9%가 증가되었음
- 태국산의 수입량은 한국산보다 38.5% 많으나 수입액은 오히려 16.8% 가 적음. 한국산 수입단가는 KG당 US$17.7불이나, 태국산은 US$4.22로 약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굴

- 2013년 1-8월 기준 한국산이 175.5톤(US$656천불)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음. 활어 신선 및 냉장형태로 50%, 냉동형태로 40% 수입되며 건조형태로 약 10% 수입됨
- 2012년 8월 기준 한국산 257톤(US$855천불) 로 노로 바이러스 사건 이후 수입이 다소 저조한 편임

❍ 고등어

- 2013년 1~8월 기준 가공식품을 제외한 고등어 수입실적은 3,304톤(US$3,798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14.5%(-4.9%)로 다소 감소되었고, 그 중 한국산은 12.5톤(US$10천불)이 수입되었음. 전년 동기 한국산은 전혀 수입되지 않았으며 금년 다소 수입되기는 했으나 한국산 고등어는 시장 내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미끼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임
- 시장 내 가공품 외 냉동 고등어의 대부분은 노르웨이산으로 2013년 1~8월 기준 전년 동기 실적 20.7톤(US$2,197천불) 대비 약 6.3%(15.9%) 증가됨. 반면 일본산은 방사능 유출 문제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28톤(US$572천불)에서 19톤(US$56천불)으로 97%(90%) 대폭 감소되었음

4. 동향 분석【오징어 시장 동향】

□ 품목 개요

- ❍ 명칭 : squid(영명)/ 魷魚(한자명)
- ❍ 분류 : 두족류 십완목
- ❍ 크기 : 몸길이 최소 2.5cm에서 최대 15.2m까지
- ❍ 오징어의 종류

<대만 오징어 산업의 4대 오징어 종류 >

구분	아르헨티나 오징어	뉴질랜드 오징어	점보 프라잉 오징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영명	Argentine shortfin squid	Wellington flying squid	Jumbo flying squid	Neon flying squid
학명	Illex argentinus	Nototodarus sloanii	Dosidicus gigas	Ommastrephes bartrami
신체 길이	중형 대서양 : 40cm	중형 태평양 : 40cm	거대형 북위해역 : 100cm 남한해역 : 150cm	대형 북태평양 : 53cm 남태평양 : 65cm 대서양 : 85cm
형상				

□ 생산 현황

- ❍ 대만 오징어 어업 해역은 크게 4군데로 나뉘는데, 뉴질랜드 어장, 서남대서양어장, 서북태평양어장, 동남태평양 어장이며 최근에는 서남대서양 어장과 동남태평양 어장에서 90% 이상을 조업하고 있음
- ❍ 1983년 이전까지는 뉴질랜드 어장 및 서북태평양에서 어업을 하였으나 총 어획량은 연간 40천톤에 불과하여 한국으로부터 주로 수입을 하였음
- ❍ 1983년 이후 최초 서남대서양으로 원양어업을 시작으로 서북태평양까지 원양어업을 하여 1999년 276천톤, 167척 운항하는 등 최대 어획량을 나타내었으나, 자원감소로 인해 최근 2년간 평균 100천톤 어획에 그침. 특히 2010년은 어획량이 60천톤까지 하락되었음
- ❍ 2002년부터는 동남태평양에서도 원양어업을 통하여 최소 12천톤에서 최대 35천톤까지 어획하고 있음
- ❍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물량 6.1% 감소하였고, 금액은 34.2% 상승되었음
- ❍ 오징어 채낚기 방법으로 조업함
- ❍ 2012년 기준 냉동·냉장오징어는 59,556톤(NT$3,180,204.5천달러), 조미 건조품으로 985톤(NT$270,875천달러), 소스류로 1,052톤(NT$101,520천달러)이 오징어 제품으로 가공됨

<연도별 오징어 어획 현황>

(단위 : 톤, NT$천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전년 대비
물 량	68,746	59,749	104,513	98,126	▽6.1
금 액	1,892,626	1,109,207	1,995,190	2,677,692	△34.2

자료원)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 통계 자료 http://www.fa.gov.tw/cht/Publications/index_L3_1.aspx

□ 수입 동향

❍ 2013년 9월 기준 오징어의 최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칠레로 97% 이상이 냉동 상태로 수입이 됨. 그 외 건조 및 조제품으로 수입됨

❍ 2012년 기준 연간 수입실적은 약 27,014천불(19,131톤)이고 대만 어획금액의 약 33.6%, 어획량의 19.5%를 차지함

❍ 최근 수입 증가 추세로 2011년 기준 전년 대비 수입액은 62.8%, 수입물량은 33% 증가하였고, 2012년 전년 대비 수입액이 -8.8%, -7.1%로 다소 감소되기는 했으나, 대만 최근 원양어업 조업 물량이 감소되면서 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오징어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톤/ US$ 천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1~9)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중 국	5,219	5,997	6,430	7,730	6,265	7,778	2,409	3,120
인도네시아	1,793	2,728	4,827	8,146	4,520	7,056	3,192	4,851
베트남	356	529	2,034	2,406	1,234	1,608	373	833
파나마	78	60	125	81	413	275	650	420
페 루	2,719	2,967	1,043	1,884	1,190	2,835	347	618
칠 레	1,996	2,274	2,153	3,067	2,453	2,741	2,454	2,845
멕시코	751	810	-	-	-	-	-	-
아르헨티나	21	31	-	-	-	-	-	-
일 본	56	144	336	625	21	228	61	197
태 국	543	706	939	1,629	460	1,232	174	638
한 국	86	231	102	258	102	452	78	786
합 계	**15,477**	**18,191**	**20,595**	**29,614**	**19,131**	**27,014**	**11,923**	**16,892**

자료원) 대만 재정부 관무서 http://web.customs.gov.tw/mp.asp?mp=1

❍ 오징어는 주로 냉동형태로 수입되며 2011년 기준 수입 연간 성장률이 54.49%을 기록함. 이는 2010년 대만의 어획량 급감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2011, 2012년 오징어 수입 형태별 수입 현황>

(단위 : 톤, NT$천달러,%)

구 분	2011					2012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중량	연간 성장률	금액	점유 비율	연간 성장률	중량	연간 성장률	금액	점유 비율	연간 성장률
활어, 신선	0.7	-29.95	69	0	-68.64	0.2	-72.67	47	0	-31.88
냉 동	19,722	33.07	814,867	4.25	54.49	18,436	-6.76	742,321	3.69	-8.9
건 조	1.3	-51.50	238	0	-63.77	858	-33.75	152	0	-36.13
염장, 훈제	0	0	0	0	0	0.5	0	56	0.01	0
조제(냉동)	0.7	8.26	52,971	0.63	21.17	560	-13.86	52,364	0.59	-1.15
조제(통조림)	2.9	-45.66	106	0	-39.08	8.4	187.44	308	0	190.57
기타 조제	166.7	2147.2	6,287	0.07	138.05	125	-25.27	5,423	0.06	-13.27

자료원) 대만 경제연구원 산업경제 자료집

□ 유통 및 소비동향

❍ 오징어 최대 거래 도매시장은 高雄(까우슝)도매시장으로 전체 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함

❍ 유통경로

<내수시장>

- 가공처리 오징어
  조업/수입⇒까우슝 항구⇒가공공장⇒매장⇒소비자
  조업/수입⇒까우슝 항구⇒가공공장⇒중간상인⇒인터넷 쇼핑몰(건조품 위주)
- 냉동상태에서 바로 유통
  조업/수입⇒까우슝 항구 (분급포장)⇒도매시장(전국각지)⇒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
  조업/수입⇒까우슝 항구(분급포장)⇒중간도매상⇒대형할인매장

<수출용>

- 가공처리 오징어
  조업⇒까우슝 항구⇒가공공장⇒무역업체⇒수출
  조업⇒까우슝 항구⇒가공공장(대형업체에서는 가공 수출을 동 시에 함) ⇒수출
- 냉동상태에서 바로 수출
  조업⇒까우슝 항구(분급포장)⇒무역업체⇒수출

❍ 오징어 조업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한 오징어는 항구 도착 후 가공 공장으로 이동됨. 수산물 가공공장은 대부분 대만 남부 까우슝, 핑동 지역 일대 항구 부근에 위치함

❍ 대만 도매시장 유통 형태는 대부분 냉동 오징어이고 슈퍼마켓 및 기타 유통매장에서는 소포장 냉장 오징어를 판매함

❍ 냉동 및 신선 형태 외에 1차 가공 후 식자재 형태로 유통되기도 함. 1차 가공 후 식자재 형태로는 오징어 꼬치형, 오징어 몸통, 오징어 다리, 데친 오징어 링, 오징어 채, 칼집 낸 오징어 등이 있음

<대만 1차 가공된 식자재용 오징어 판매 형태>

오징어 꼬치(약간 구워짐)	오징어 몸통(살짝 데침)	오징어 다리(살짝 데침)
오징어원형절단(살짝 데침)	오징어채(살짝 데침)	칼집 낸 오징어(살짝 데침)

<대만 매장별 오징어 판매 경관>

냉장오징어(Matsusei)	냉동 오징어 꼬치형태(愛買)	침수 오징어(RT-Mart)
건조 오징어(CITY SUPER)	냉동 오징어(까르프)	냉장 오징어(코스트코)

<오징어 이용한 각종 요리>

오징어 수프	데친 오징어	오징어 구이	오징어 셀러리 볶음

<시판용 오징어 가공 식품>

대만산 마른 오징어채	한국산 건조 오징어구이	태국산건조 오징어구이
일본산 마른 오징어채	대만산 오징어 튀김	대마산 오징어 과자

❍ 도매가격정보

- 전국 산지 가격 평균 도매가 : 90% 이상이 까우슝 항구로부터 입항이 되고, 수산물 산지 도매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의 가격차는 2~3배 가량 됨
- 산지시장은 2013년 기준 2009년 대비 평균가가 49.67% 상승, 물량은 약 10~20% 감소함
- 소비지 시장은 2013년 기준 2009년 대비 평균가가 224% 상승, 물량은 3배 가량 감소함

※ 산지 도매시장 : 지롱(基隆), 토우청(頭城), 수아오(蘇澳), 타이난(台南), 씽다강(興達港), 까우슝(高雄港), 花蓮(화리엔), 씬관(梓官) 펑후(澎湖), 동강(東港)

※ 소비지 도매시장 : 타이베이(台北), 싼총(三重), 씬주(新竹), 타오위엔(桃園), 미아오리(苗栗), 타이중(台中), 짱화(彰化), 푸신(埔心), 푸리(埔里), 지아이(嘉義) 등

<오징어(냉동) 전국 산지 도매시장 평균가 및 평균 물량>

(단위 : kg, NT$/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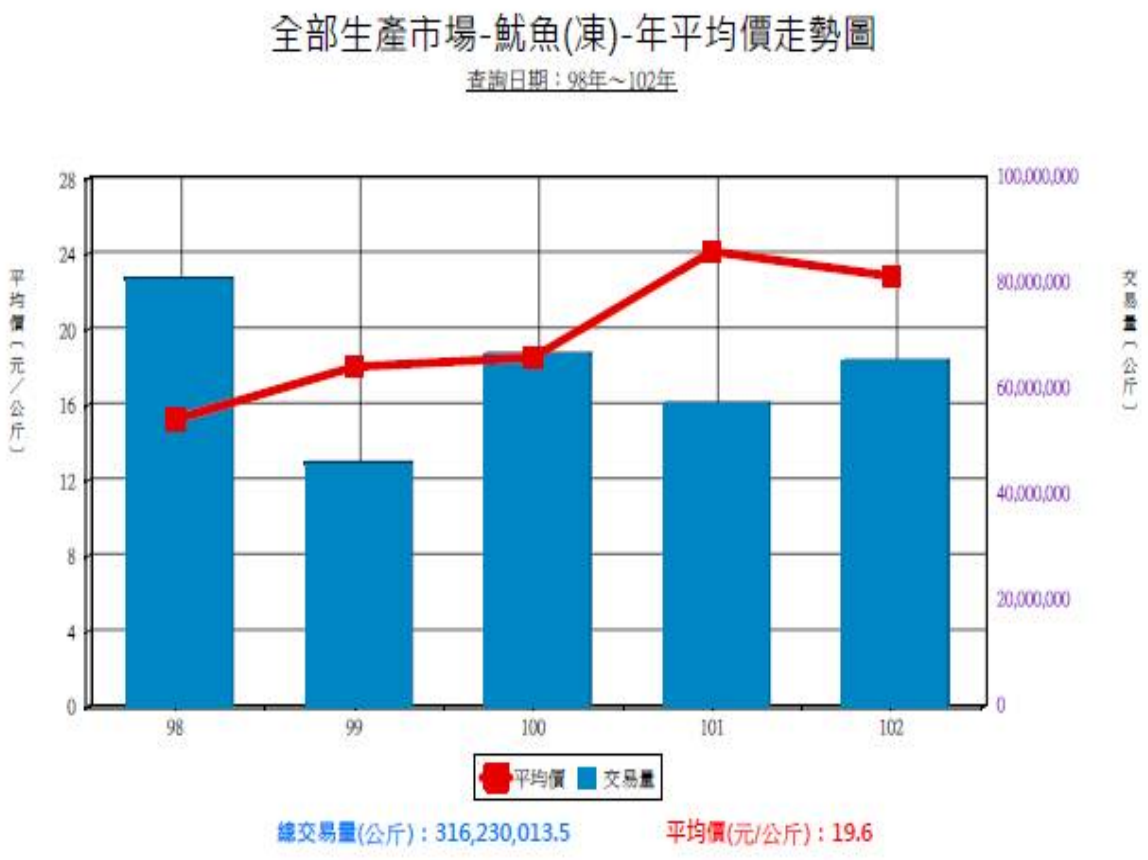
거래기간	2009	2010	2011	2012	2013(1~11)	평균가/총량
평균가	15.3	18.10	18.60	24.20	22.90	19.60
교역량	80,943,526	46,063,489	66,637,987	57,266,227	65,318,785	316,230,013

<오징어(냉동)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평균가 및 평균 물량>

(단위 : kg, NT$/kg)

거래기간	2009	2010	2011	2012	2013(1~11)	평균가/총량
평균가	34.10	35.60	60,50	74.90	76.30	49.60
교역량	566,569	455,200	227,808	297,262	194,981	1,741,821

<전국 산지 시장의 평균가 및 거래물량 도표>



* 자료원) 수산물 국제 정보 사이트(http://efish.fa.gov.tw/efish/statistics/reportmap.htm)

□ 수출입통관제도

❍ 품목 분류 코드 및 관세율

품목 분류 코드	품목	관세율	수입규정
03074120908	활어, 신선 또는 냉장 오징어 (Squid, live, fresh or chilled)	NT$15원/kg	F01
03074912900	냉동오징어(Squid, frozen)	NT$15원/kg	F01
03074922105	건조오징어(Squid, dried)	NT$219원/kg 或 50%	F01
03074922203	염장 또는 침장 오징어(Squid, salted)	NT$219원/kg 或 50%	F01
03074932005	훈제 오징어(Squid, smoked)	40%	F01
16055410108	조미· 보존 처리된 오징어, 냉동오징어 (Prepared or preserved squid, frozen)	40%	F01 MW0
16055410206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통조림 (Prepared or preserved squid, canned)	40%	F01
16055410901	기타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Other prepared or preserved squid)	40%	F01 MW0

* 자료원) 대만 재정부 관무서 http://web.customs.gov.tw/mp.asp?mp=1

* 주 : MW0 : 중국물품 수입금지

F01 : 수입상품은 행정원 위생서가 발부한 「「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수입식품및관련제품검역방법조문)」의 규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함

❍ 수입검사

- 수입업체는 아래의 서류 및 전자문서를 구비하여 식품약물관리서에 신청함

검역 신청서,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서, 수입신고서 복사본, 중앙기관이 요청하는 위생검사증

- 검역 방법의 종류

▪ 전수검사 : 해당 품목의 전량에 대해 서류심사、현장 외관 및 라벨 심사、샘플링하여 지정 실험실 분석 검사 실시 등 모두 검사함

▪ 발췌검사 : 수입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각 품목별/국가별로 지정됨

일반 발췌검사 : 5%, 강화 발췌검사 : 25%~50%

▪ 전수 심사 : 발췌 검역품의 미 발췌 상품의 현장 심사

▪ 검증결과등록 : 위생관리 안전 업체로 등록 (검역, 심사, 샘플링 분석 결과 보고서 등)

▪ 불합격 처리

→ 반송 및 폐기

→ 개선 및 수정 보완이 허가된 상품은 관련 공문을 이용하여 수입 허가를 먼저 신청함. 재검 후 개선이 입증되면 판매가능

→ 선행 수입 통관이 되었으나 재검 후 불합격 판정된 경우 회수、반송 폐기 처리함

▪ 식품 라벨링 의무 표기사항(식품위생법 제 22조에 근거)

→ 품 명
→ 내용물 명칭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 주성분은 백분율 표기, 표기상품, 주성분항목, 표기내용, 방식 및 각 상품의 실시 일자는 중앙담당기관이 지정한 것으로 함
→ 중량, 용량 또는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 2가지 이상 혼합이고 기능성 상품인 경우 식품첨가물을 각각 분리 표기
→ 국내 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 주소
→ 원산지(국)
→ 유효일자
→ 식품영양표시
→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 사항
→ 식품영양표시는 그 준수사항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것으로 함

❍ 수출확대방안

- 2008년 이후 한국산은 조미오징어 위주로 수입되고 있고, 냉동오징어는 품질은 우수하나 가격 경쟁력이 약한 편임. 향후 한국산 오징어를 이용한 한국산 특유의 맛 또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한다면 수출 증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위생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위생안전보증 식품을 찾는 소비층이 많아졌으므로 국제안전기준 인증 및 관리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한국산 오징어 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